10

한국 청소년에서 비만 및 대사성 위험인자에 대한 가족내 군집성

-한국 청소년 가족 연구(Korean Adolescent Family Study)를 토대로-

박혜순, 조성일*, 임경숙**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배경: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청소년에서 비만 및 대사질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발생은 인종 및 민족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틀리는 바, 유전적·환경적 요인들이 공존하여 발생하며 가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한국 청소년 가족 연구를 통해 현재 증가 일로에 있는 청소년 비만 및 대사질환에 대해 가족내 군집성을 파악하고 현 시점에서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방법: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 자원자 가족 총 134 가족을 모집하였다. 비만 및 대사성 위험인자에 영향을 주는 질병 및 약물 복용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은 제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과거력,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은 설문을 통해, 영양 섭취 양상은 타당도가 확립된 식품섭취빈도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모든 측정은 공복 상태에서 시행하였고, 신체 계측으로는 신장,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를, 대사성 위험인자로는 혈압, 공복시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해 가족내 군집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intraclass correlation coeffe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연구에 포함된 134 가족의 구성원은 부 128명, 모 132명, 첫째 자녀 134명, 둘째 자녀 92명, 셋째 자녀 5명으로 총 491명이 포함되었다. 부모들의 연령은 40대 초반이었고, 자녀들의 평균 연령은 13.3세였다. 2) 신체 계측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아들의 경우보다는 딸의 경우에 부모들의 신체 계측과의 연관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만도 및 지방 분포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에도 신장 및 체중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들끼리도 신장을 제외한 모든 신체 계측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3) 대사성 위험인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은 아버지와 자녀사이에, 공복 혈당은 어머니와 딸사이에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레스테롤은 부모와 자녀들간에 모든 조합에서, HDL-콜레스테롤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성지방은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혈압은 부부간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들끼리의 대사성 위험인자의 연관성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결론: 한국인 청소년 가족에서 비만 및 대사성 위험인자는 부모-자녀, 자녀-자녀, 부부 사이에 군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비만 및 대사질환의 관리 시 가족적 접근을 통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심단어: 비만, 대사성 위험인자, 가족내 군집성, 한국 청소년